

建築學과 文化人類學의 共同作業에 관한 研究 ——構造主義 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李熙邦

建築學科

〈要 約〉

建築學은 使用者의 生活中心으로 起아 가야한다. 즉 使用者の 文化가 그 바탕에 組織되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이것은 문文化人類學의 영역에 속한다. 文化人類學과 建築學의 인적을 모색할 때, 人類學의 문文化生態理論과 構造主義理論이 가능성이 크며, 構造主義理論을 전축에 적용한 실례는 Atoni House와 안락構造로 들었다. 이 文化人類學의 理論을 基本에 나간 때兩分野의 共同作業이 가능하게 되며, 각각 建築物 生産의 根本原理를 採用해 줄 수 있다.

Cooperation with Architecture and Cultural Anthropology —Based on Structuralism—

Lee, Hee-Bong

Dept. of Architecture

〈Abstract〉

The goal of architecture should be focused on user's life. We should also help user's culture to be organized correctly. That is included in anthropology's domain.

Trying to link architecture to cultural anthropology, two of main streams in anthropology, cultural ecology and structuralism are useful.

Instances of application of structuralism in architecture, are given Atoni House and An-Pak(In-Out) Structure.

Enlarging this theory, co-operation work with both field is possible and basic principle is able to be given to the production of architecture.

人類學에서의 構造主義 理論을 建築學에서 도입했을 때 어떻게 새로운 지는가를 본다.

I. 研究背景

1. 研究目的

窮極目的은 建築學이 나아갈 方向을 定立하는 데 있다. 現代는 學問이 細分化되는 관계로 하나의 對象을 다각적으로 보는 장점은 있으나, 종종하여 전체를 못 볼 수도 있다. 따라서 學問間을 一下하며 統合의思考를 학으로써 좋은 것을 넘을 수 있다. 人

2. 研究方法

文獻에 의한 分析을 主方法으로 하여, 必要性→理論導入→適用例→展望의 經路로 나간다.

3. 概念定義

1) 文化: 文化의 대한 가장 古典的 定義는 E.B. Tylor(1871)의 「Primitive Culture」에서 「文化는

知識, 信仰, 藝術, 道德, 法, 優行等 人間이 社會의 한 成員으로서 擁有한 다른 能力와 習慣들을 포함하는複合總體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現代 文化人類學의 球狀로 文化를 모든 입장에 附加 다양한 定義가 생기었다.⁽¹⁾

그중 비교적 공통되는 사항은 주제로, 文化는 人間의 行為로부터 끌어낸 抽象이다. 또 人間의 象徵行為에 의기한 物質과 行動으로 구성되어, 일종의 精神的 現象으로서의 概念(Idea)이다.⁽²⁾

2) 文化要素 : 文化的 類型에 따라서로 다른 組織體系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分類한목이다. 獨逸계열에서는 ①精神文化 ②物質文化 : Boas는 ①物質文化, ②社會關係, ③藝術, 宗教倫理로 細分하고; Wißler는 ①精神 ②物質 ③藝術 ④神話와 科學의 知識 ⑤宗教行事 ⑥家族과 社會組織등 9개로 分類하고; Yale大人間關係研究所는 10질문 유법으로 18住居 30藝術 30親族등 46개 항목으로 分類했다.⁽³⁾ 本論文에서는 住居, 言語, 文字, 衣服, 繪畫, 音樂등을 文化要素로 다룬다.

3) 構造主義(Structuralism) : 思考方法의 한 종류로서 人文社會科學에도 數學에서와 같은 論理法則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데서 출발했다. 建築에서 일반적인, 構造力學의 構造와는 다른 개념이다. 言語學, 人類學에서 사용되어, 心理學, 哲學, 社會學등에 펴졌다. 人類學에서 Levi-Strauss가 言語學의 記號法則을 사용하여 친족계계를 分析하면서 등장했다. 그와 유사한思考로는 人類學의始祖라 할 수 있는 E. Tylor과 거슬러 올라가며, Hurbert, Mauss, Boas, 東歐의 Formalist, Prapp등도 다른 용어로 비슷한 개념을 사용했다. 思考特性을 보면, 첫째, 여러 文化에 있어 「전체성(wholeness)」을 꾀 계시주는 「安定된 規則」을 가정한다. 이 規則은 學者이 꾀하는 「深層構造, 核心構造, 社會活動의 結晶, 모델, 片面의 體係, 本質의 것, 文化熟語」등 다양하게 불린다. 두째, 이 規則이 여리곳에 「變形(Transformation)」된 形태로 나타난다고 보며 이 것을 찾아내는 것은 要素의 對應에 의해서다. 세째,

時間의 軸을 따라 構造化 해나가는 「永續化」의 상 절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集團의 深層에 나타나는 「無意識性」을 강조한다.

II. 建築學이 文化人類學으로 접근 해야할 必然性

1. 現代建築의 反省

20世紀의 末期에 들어와 있는 現代建築은 그 本質이 무진서한 정도로 多樣하다. 그러나 그 多樣性의 根源이 되는 1920년대의 近代建築運動으로 이끌려 올라가지 않고는 그 說明이 불가능하다. 產業革命이후 발달한 철, 플크리드, 유리등의 새로운 材料를 사용한 構造方法의 등장은 새로이 歷史의 무대에 등장한 中產階級에게도 산 路으로 當業生産과 建築物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었고, 따라서 그 전엔 일부 특수종민의 취향에 맞춘 美의 标準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면서, 獨逸工作連盟, Bauhaus, 表現主義, 等의 各種 建築運動이 발생했다.⁽⁴⁾

近代建築運動의 特性은 國際主義樣式(International style)이란 用語로 要약된다. 이 用語는 Gropius가 近代建築에서는 個人的 特징도 國家的 特징도 극히 離叛적으로 파악 된다고 말할때서 (1924)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歷史家인 Hitchcock와 Johnson이 처음 사용하였다.⁽⁵⁾ (1932), 이 말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地域差는 全體的 경향에 흡수된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思考는 CIAM(국제건축가 회의)이 창립될때까지 30여년간을 建築의 生産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 이에 대해 Giedion은 CIAM에 대한 評價를 하면서 현대건축이 나갈 方向을 「環境과 傳統」의 문제라고 말한다. 地域의 차이란 표면적인 것 보다 훨씬 중요하며, 유품, 습관, 재료등의 지역적 차이를 무시한 建築은 建築의 파산을 가져올 뿐이라고 보았다.⁽⁷⁾

近代建築運動의 배경이 된 形態美, 機能, 技術등은 前時代의 不合理한 性格, 手工業的인 性格을 탄

(1) A. Kroeker와 C. Kluckhohn은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Vintage Book, 1963)에서 100여가지의, 文化에 대한 定義를 문류, 평가했다.

(2) Leslie White 「The Concept of Culture」, 李文雄역 「문화의 概念」 (서울: 一志社, 1978) pp.132—157에 서.

(3) 李光允 「文化人類學」 (서울: 一潮閣, 1975) p.35까지.

(4) Wolfgang Pehnt는 「Encyclopedia of Modern Architecture」, 張聖濬역 「現代 建築事典」의 序文에서, 1920년대를 다른 어느 시대의 건축과도 전혀 弗이 한, Utopia의 시대라고 말한다.

(5) 위의 책 p.17 및 Charles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New York: Doubleday, 1973) p.33.

(6) Wolfgang Pehnt, 앞의 책 p.17.

(7)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Cambridge: Harvard Press, 1973) p.705.

회하여 새로운 轉期를 마련 해 줄 수는 있었으나 自體論理에 빠져버리면 이미 전부한思考로 떨어져 버리고⁽⁸⁾ 건축물이란 경계 안에 사람이 살기 편한 건축물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現代建築이 地域特性을 무시하고 보편적 인論理를 근거시킴으로써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기로 한다.

現代建築의 巨匠 Le Corbusier가 인도의 편집州의 新首部로 계획한 Chandigarh을 보면, (1945~46), 설계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를 사용할 것인가에 인도인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늘날 어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⁹⁾ 구체적으로 말하면, 넓은 都市公園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황폐해 있다. 왜냐하면, 미국시민이라면 일요일 날 가족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겠지만, 인도에서는 오히려 친척집을 방문할 것이고, 또 남편의 호위 없이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간다면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따라서 西歐式 밭상의 公園은 인도인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 다음 코뮤니티 창업시설의 계획안에는 한지구에 여러 종류의 상점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도인의 물건사는 관습에 의해, 오늘날 한 지구에는 전부 같은 종류의 상점이 몰려 있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여 주거를 잡식하거나 불법시설물 또는 행상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설계자는 주민들의 구매행위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엉뚱한 건축물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 개개 주거에서, 방은 구획할 때 역시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고려치 않아서 지금은 거실이 침실로 쓰이고 침실이 가족들이 모이는 곳으로 쓰이는, 설계의도와는 판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한개의 주거는 지금은 다른 한세대에 일부를 세 놓음으로써 훨씬 복잡하게 사용되는 데, 이것은 경제능력과도 관계 되지만 인도인은 대가족 제도로 전통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살아 았으므로 privacy란 개념도 西歐와는 달리 더 밀접하여 유지 될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 지구 밖의 다른 국민학교에 다닌다. 왜냐하면 경제능력, 사회적지위등에 따라 학교가 선별되므로 국민학교가 이미 코뮤니티의 중심이란 개념을 잃게 되었다. 또 질이란 개념도 설계에서 와 같이 광

활하게 넓은 것이 아니라 대문앞에서 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이다.⁽¹⁰⁾ 이 모든 것은 인도인의 특유의 生活에 대한 이해 없이 당시 유행하던 國際主義 양식을 이식한대 불과한 탓이다. 그런데 Le Corbusier의 Chandigarh 계획은 오늘날 까지도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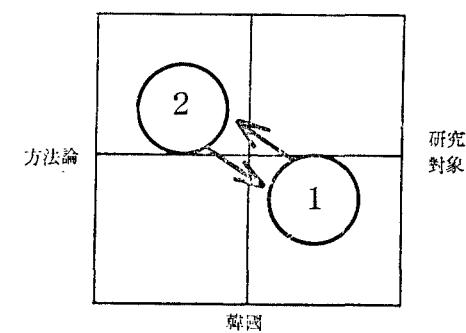
최근 中東에 西歐의 기술진이 박종해주는 건축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란의 최신 냉방장치를 갖춘 아파트에서도 사람들은 거의 밤코니에 나와서 잠을 잔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집밖 마당에서 잠을 자는 관습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 재료에 관해서도 새로 지은 건물들이 낫과밤의 온도의 차에 의해 시멘트 물탄이 떨어져나가 보기 흥한 건물이 된다. 中東人們은 헛볕에 구운 벽돌을 사용하여 수천년 기후에 적응해온 자기 나름의 建築技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이상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現代建築은 그 근본理念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 할때, 낡은 수법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으며, 使用者들의 生活을 풍성하게 도와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質을 떨어 놓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자면 자연히 설계자는 사용자의 文化에 대한 研究가 필요. 분가결한 과제로 등장한다. 여기서 文化的 研究를 주로 담당하는 文化人類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 兩學問의 韓國的 狀況

國內에서 제반 學問이 나아가고 있는 狀況을 分析의 편의상 두가지로 나누어보면, 韓國에 있는 對

西歐



(8) 한 시대의 전위적이고 혁명적인思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에 오는思考에 의해 떠온思考로 변하는 것이 필연적임.

(9) Brent Brolin 「Failure of Modern Architecture」(London: Studio Vista, 1976). p.90.

(10) 이上面은 Brent Brolin 앞의 책 p.88~102. 에서

象은 방대하게 조사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西歐의 方法論을 도입하고는 길과 순 西歐의 方法論에서 출발하여 韓國의 것을 걸어 안아 가는 걸이 있을 것이다.

作業의 시작 단계에서, 前者は 단순한 資料수집에 그칠 무리가 있고, 後자는 論理 차원의 사합의 단계에 빠진 무리가 있으므로, 두 方向이 서로 調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文化人類學은 民俗學에서 출발하여 前者の 길(①)을 갔다고 보여지며, 지금까지의 작업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資料를 수집하거나, 資料를 처리하여 系譜을 확인해 보거나, 既存述語에 代入해 보거나, 資料를 비교 편집해 본 데 그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反省과 아울러 資料밖에 숨어 있는 眞髓을 표출해내고 文化的脈絡을 찾자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¹¹⁾

한편, 韓國의 建築學은 극히 비약한 기반위에서 대방을 맞게 되었고, 西歐의 思潮와 方法論은 흥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西歐에서는, 產業革命이 완성되면서 建築運動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韓國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진행된 리가 없었다. 이것을 鄭寅國氏는 西歐에서 계통을 갖고 활달한 思潮가 거의 동시에 유입됨으로써 진행단계와 후속단계 모두가 불투명한 과정을 맞게 되므로 혼란에 빠질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¹²⁾

즉, 建築學은 人類學과는 反對로 後者の 길(②)을 갔다고 볼 수 있으며, 근래에 들어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우, 나의 人生을 찾자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傳統建築의 調査技法, 民家의 類型, 人生의 ी치등 조사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는, 人生에 기다면 1차로 自然과 人間社會에 널리 있는 資料를 수집하고 2차로 分析者の 觀點을 통하여 物體로서 宇宙를 再構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建築學에서는 눈에 보이는 現象으로서의 對象만 취급할 무리가 다분히 있다. 建築教育의 면에서 보면 國內의 建築學科는 工科大學내에 소속되어 있고 教科의 차지도 物質을 對象으로 하여 構成하는 教育에만 치중하지, 物質構成의 根本原理가 되는 諸情報들 국구적으로 파악하는 教育에는 限界가 있다. 即ち 人間生活과 人間精神의 物質構成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物質 차지, 즉 建築物 또는 都市形態 등을 보고 해독해내는 작업과, 반대로 使用者로서의 人間의 文化에 도움을 주는 建築物을 설계하는 것은 建築學 자체만으로는 어렵는 과업이다.

3. 建築學에서의 接近 方向

첫째, 建築에서 國際性에 對하여 「地域性」을 우선시키는 方向에서 살펴 먼저 Roudofsky의 『土着建築을 찾는 작업』을 들 수 있다. 그는 現在 쓰이는 建築史가 空間的으로 全地球上에서 출판되는 地域誌의一部地域誌, 時間의으로도 최근 AD. 200년 이후, 階層上으로도 神, 王, 戰士, 商人의 地域誌를 다루는 面面한 개념으로 이어 대체로 전 세계 곳곳에 自生되어온 「方言의, 國名의」 建築을 찾아내어 現代建築에 응용할 가능성을 조망하고 있다.⁽¹³⁾

다음으로 멕시코의 建築運動을 들 수 있다. 1910년대에 시작된 멕시코의 民族主義 革命에서 모든 美術이 이에 참가하게 되었고, 建築은 機能主義를 國主義의 수임품으로 규정하여, 아즈텍의 傳統을 주장했다. 現代 멕시코 建築은 國際主義樣式을 기초로 했으나, 완고한 기능주의도 非個性的 建築樣式도 아닌 멕시코 現實에 맞는 特性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즉 形態를 雕塑的으로 표현하고, 강렬한 色彩를 사용하는 美術과 建築과 統一을 꾀하고, 原產地의 材料를 사용하고 특히 아무 필요이 없는 民家에서 벽돌과 블록을 쌓거나, 흰색을 칠한 소박한 블록등을 사용한 簡潔은 살피는 것이었다. 即ち 멕시코의 建築家들은 自己의 氣候, 習慣, 土地에 적합한 建築을 만들어 내었다.⁽¹⁴⁾

둘째, 建築에서 社會, 文化, 環境의 方向으로 接近하는 예를 들어 보면 우선 Smithon부자로 대표되는 New Brutalist 그룹이 있다. 그들은 現代建築의 잘못된 점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한개의 프로그램을 만들려 했다고 지적하면서, 建築家の 主觀心事는 技術의 倘만으로 무의 人間의 欲求를 잘 조화시킬 것으로 옮겨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社會構造를 「表現하거나 反映하는」 物質의 ी形態를 建築에서 찾아 낸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코뮤니티 안에서의 社會관계를 살피며 반영

(11) 任哲宰 “朝日文化人類學의 反省과 指向－學會活動分野”『文化人類學』 제6권 p.196.

(12) 金実湖 “朝日現代建築20年”『空間』1967.11. p.21.

(13) Bertrand Roudofsky『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New York: Doubleday, 1964)

(14) 金正登『現代建築を例くもの』(東京: 彰國社, 1970) pp.27-37.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그리 단순치는 않다. 설계자와 使用者가 社會構造를 物質的으로 표현한 것을 쉽게 이해하면 편찮지만, 만약 使用者가 건축가와 다른 文化, 다른 계층이어서 社會의 경향을 공유하는 부분이 적을때, 또 사람들이 전경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대신, 설계자 자신의 構造를 강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¹⁵⁾

최근 이런 物質的인 構造인 建物과 市內에서 발생하는 폭력, 무질서, 소외 현상은, 社會 모든 계층이 공동의 生活目標와 文化를 가져야 한다는 확신이 設計者나 建築主에게 부족한 탓이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Heimsath는 「Behavioral Architecture」에서 여러 예를 들며 제안한다.⁽¹⁶⁾ 별씨 이러한작업은 建築家만의 영역은 벗어나며,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어느분야와도 공동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建築學은 社會學, 心理學, 文化人類學과의 共同作業은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III. 文化人類學 理論의 建築學으로의 연결가능성

1. 文化生態理論(Cultural Ecology)

現代 文化人類學 理論들의 중요한 몇호를 중하나인 文化生態理論이 建築學과 연결될 가능성은 보기로 하자.

文化生態理論은 人間이 「環境」에 어떻게 「適應」해 「나가는가」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며 따라서 文化進化論으로 분리기도 한다. 여기서, 人間을 生物學의 進化의 產物중,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므로 특이한 존재로 본다. 적응의 과정에서 자신과 환경사이에 「文化」라는 중간장물을 놓고 환경에 대해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文化的 장치에 한변통과 하여 반응한다. 따라서 환경은 文化적으로 수정된 환경이라 말 할 수 있고, 自然환경은 절차 文化的 환경으로 번해간다. 文化를 통하여 ecosystem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환경決定論이라기 보다 환경可能論이 더 타당하다. 또 적응

을 分析해 나가는 과정상 技術과 經濟을 강조하게 되며 物質主義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면, 결국 文化가 어떻게 주위 環境을 分類하고 横分化하는지를 연구한다.⁽¹⁷⁾

이 理論은 建築學에 적용하기 위한 기능성을 보면, 建築物 주위의 환경요소, 즉 土地, 土壤, 지형 등이 建築物의 형태를 어떻게 형성시켜 주는가와 반대로 환경에 적합한 建築物의 設計까지도 고려해 줄 수 있다. 혼히 환경요소가 건축물을 바로 결정해 주는 것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뚜 같은 환경조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를들면, 바다에 석양으로서 고기가 풍부하다는 자연환경과 그것을 잡는 방식이 어떤 文化內에서 발생한 것과는 무관하다.⁽¹⁸⁾ 사람이 아를 때 어떤 文化內에서는 병원에 가지만 또 다른 文化내에서는 굿을 한다. 그들이 하는 方式대로 하는 것은 바로 文化的으로 說明되어야 한다.⁽¹⁹⁾ 바하가자로, 지붕의 形態는 강우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일한 강우패턴을 갖는 곳에 동일형의 지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²⁰⁾ 文化的 사용자들이 지붕을 만드는 방식에 한번 걸리긴 文化的 環境으로서만 강우패턴은 人間에게 意味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연環境은 文化的 環境으로 바꾸어 설명하려는 文化生態理論은 과거의 建築物을 分析하는가, 앞으로의 建築을 設計하는 데에 人間을 中心으로 한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2. 構造主義人類學理論(Structural Anthropology)

社會가 全體性(Wholeness)을 띠게 해주는 根本組織原理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構造(Structure)라 부르자, 이것은 그 社會가 그대로 있게 有持해 주는 것으로 構成員의 無意識속에 집단으로 들어 있다. 이것은 면 옛날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것이다. 그 이유는 構造는 自律的(Self-Regulating)으로 계속 構造화(Structuring)해 나가므로 永續化的 性質을 갖기 때문이다.

(15) Brent Brolin 著의 책 pp.7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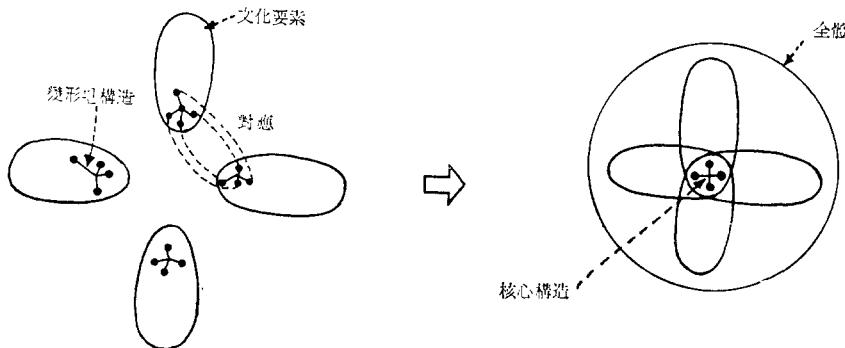
(16) Clovis Heimsath 「Behavioral Architecture」 (New York: McGraw-Hill, 1977).

(17) David Kaplan, Robert Manners 「Cultur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972) pp.75~80

(18) 위의 책 p.78.

(19) Leslie White 「The Concept of Culture」, 李文雄의 「문화의 概念」 (서울: 一志社, 1978) p.163.

(20) 지붕-구태와 강우량에 대해서는 P.J. Grillo 「What is design」 安秉義의 「건축디자인」 (서울:理工産業社, 1974) pp. 90-93 참조.



構造는 精神的 次元의 抽象化된 概念인데 관찰자는 나타나는 現象을 통하여 構造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즉 現象은 文化的 產物로서, 物質, 慣習, 제도, 神話등 어떤 形態의 文化要素에서도 나타나며, 人類學者가 착수한 研究장소는 두가지 文化要素가 서로 만나는 바다가 된다. 이와같이 根本 組織原理가 各 文化要素에 나타나는 것을 알게해주는 것은 變形(Transformation)의 概念이다. 즉 各成分을 系列體와 連合體로 나누어 1대 1 對應시켜 나가던 構造가 드러난다.

그리면 이러한 構造主義 人類學의 理論을 어떻게 建築에 適用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위에서와 같이 文化要素間에 航복되는 부분으로서, 「建築要素」와 타 文化要素 즉 神話, 親族, 言語, 文字, 衣服, 繪畫, 音樂, 民謡사이에 들어 있는 組織原理를 깨달을 때, 建築은 使用者的 文化에 초점을 맞춘 解析과 創作을 해나갈 수 있다. 이것은 마치 人類學에서 Levi-Strauss가 言語學의 記號法則을 떨리면서 各 文化에 나타나는 親族體系를 연구하였을 때 양 學問의 影響을 革命的이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²¹⁾

Ⅶ. 構造主義 理論의 建築과 連結

1. Atoni House

인도네시아의 Timor섬의 Atoni 部族의 住居를 人類學者 Clark Cunningham이 構造主義方法으로 分析한 것을 說明한다.⁽²²⁾

(21) Le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New York: Anchor Book, 1967) pp.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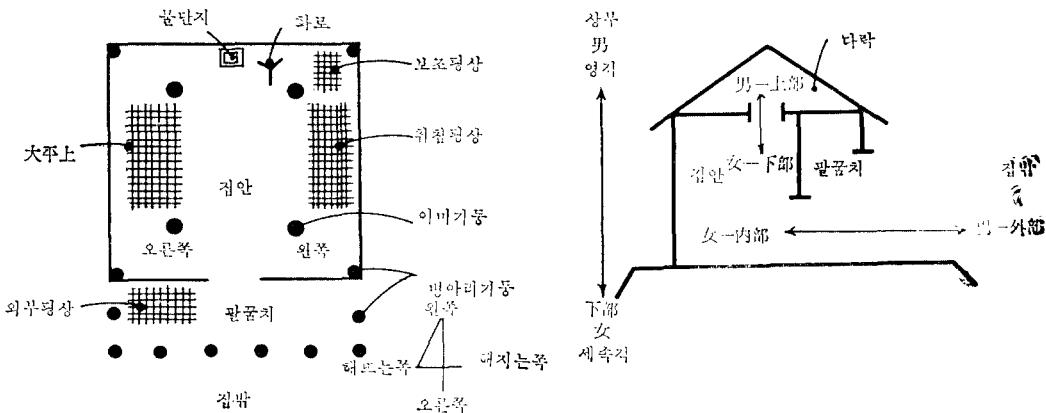
(22) Clark Cunningham, "Order in Atoni House" ed. R. Needham 「Right and Lef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3. pp.204-238.

(23) 『Atoni』, pp.234-235에서

Atoni의 住居에서 方向은 東西가 「해오는쪽／해지는쪽」, 南北이 「오른쪽／왼쪽」으로 표시된다. 空間概念은 크게 3部分으로 나뉘는데 집안(Nanan)과 집밖(Mone)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空間(Siu : 팔꿈치 : 기둥에 지붕이 덜려있고 벽이 없는 현관의 치마일)이다. 집안에는 大平床, 침대平床, 보드平床이 있어서, 손님의 서열에 따라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와 平床의 사용, 금지 여부가 가정된다. 집안에는 화로와 물단지가 편념상 중요 부위를 차지한다. Atoni House에서 男/女, 左/右, 上/下의 區分이 基本的思考패턴으로 建築에 나타난다. 즉 男—집안의 右側과 上部—집밖과, 女—집안의 左側과 下部—집안으로 표현된다.

「집밖」에서 남자손님을 만나 식사를 할 수 있는 女子는 금지된다. 소년들은 집밖 左側에서 밥을 짙을 수 있지만 소녀는 금지된다. 집안의 「오른쪽」에 있는 大平床에는 男子, 年長者, 新婦를 준 쪽 등 우월한 자리에 있는자의 장소다, 「왼쪽」은 女子의 구역이다. 또 다른 男子의 구역이다. 또 다른 對立區分으로 물/불이 있다. 지붕을 끌대기는 「太陽」, 「불꾼」이고 물부분의 水平部材는 「물벽이」고, 집안에서 화로/불단지의 區分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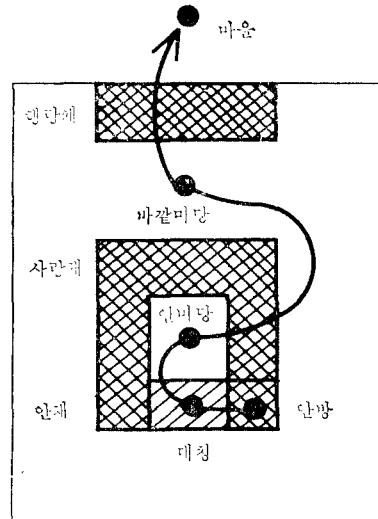
Atoni의 住居는, 空間區分形態, 制限이고, 象徵 등으로 사람들이 認識한 우주의 축소 모형임이 보여지고, 그집을 形成하고 命名한 社會的 秩序를 보여준다. Atoni社會에서, 秩序의 概念을 염두시 住居를 使用해야만 찾을 수 있다가 보다는, 「字가 떨ぱる」된 社會에서 住居야 말로 그 概念을 「는데 적당한 도구라 할 수 있다」⁽²³⁾



2. 안팎構造

「안」과 「밖」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안」은 안방, 안마당, 안뜰, 안채, 안풀(內谷), 안집, 안사람등에서, 「밖」은 바깥채, 바깥마당, 바깥사랑, 바깥양반등에 나온다. 즉 「안」과 「밖」은自己의 위치를 파악시켜 주는建築空間에서 중요 용어이다. 그러면 傳統住居에서 안방—대청—안마당과의 관계를 보면, 안방은 안살립을 하는 안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폐쇄적이고 은밀한 곳이며 대청은 안채의 중앙에 위치하여 가족의 거실로 사용되고 각종 祭禮가 거행되며, 바닥은 보통 바위로 천정은 연등천장(대들보, 서까래, 흰회바탕을 노출 시킴)으로 대담하게 장식된다. 이때 안방은 「안」이며 「대청」은 밖이 된다. 한편 안마당은 안채의 마당이며 사랑채와도 연결되고 가족공용의 외부 환공·공간으로 家事작업의 중심인데, 4면이 전불로 둘러싸인 室外空間이나 단순히 室外로 보기는 균만한 空間이다. 대청에서 안마당으로 나갈 때 대청은 「안」이며 안마당은 「밖」이 된다. 여기서 대청은 「안」이며 동시에 「밖」인 空間이 된다. 마찬가지로, 바깥마당에 대해 안마당은 「안」이며 동시에 「밖」이 된다. 이와 같이 안방—대청—안마당—바깥마당—마을—둘러싼 自然의 連鎖에서 각 부분은 「안」이며 동시에 「밖」이 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안」이고 서있는 點에 따라 「밖」이 바뀐다. 「안」은 「밖」의 시작이고 「밖」은 새로운 「안」의 시작이 되는 相對의이고 衍環의 連鎖가 形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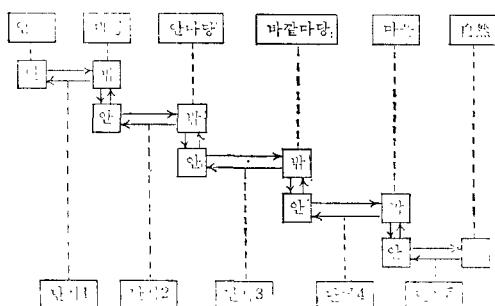
다음으로 陰과 陽의 思考를 살펴 보기로 하자. 古代로 부터 宇宙萬物을 둘로 나누어 說明하려는 兩



分法은 가장 分類, 기역하기가 쉬우므로 여러 文化圈에 나타난다. 東洋에 있어서 二元分類法인 陰陽은 人間/宇宙, 天/地, 有/無, 男/女, 理/氣, 性/情, 左/右, 吉/凶 등 여러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은 自然에 속 그대로 實在하는 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들의 認知構造가 「待對」로 兩分되며 다시 始發 終末에서 「一體」인 것으로 파악하려는데 초점이 있다. 여기서 陰陽이란 관계의 개념이고 靜的關係와 動的關係로 나누어 볼 수 있고, 靜的關係는 空間的 位階性(主從, 上下)과 時間的 連續性(前後)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고 서로 内包하기도 한다. 動的關係는 太極또는 道를 이를 단계로 兩極

인 陰陽이 相生相極 속에서 辨證法의 으로 交互하는 것이며 여기서 「陰陽一體」라는 想想이 나오는 것이다.⁽²⁴⁾ 陰陽 두 원이 结合하여 関係적 또는 反과의 矛盾으로 작용하고 나누는 다른 하나의 論理의 反(An-ti-thesis)을, 둘은 個別的 實在 과정으로 작용하고, 은유적 方便으로 陰과 陽들은 같은 하나가 되는 論理는 西歐 論理上 以위 論理이지만 이것은 認知體系에 있어서 고유한 構造的 原理이다. 人間 차자는 時間과 空間上의 상황에 따라 陰 또는 陽으로 자기의 분수를 찾고 타인과의 辨證法의 關系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여 「一體」를 추구 하려는 것이다며 예를 들면 王國에 가 賜한 王에 대해 배 賜은 陰이지만 族長으로서 그는 반대로 陽이 되며, 族員은 陰이되고 아버지 일때는 반대로 아들에 대해서 陽이 된다.⁽²⁵⁾ 즉 개인은 陽이면서 동시에 陰도 될 수 있고 陰陽이 서로 對立하지만 결국 一體가 되는 想想은 東亞細亞人の 認知構造上 가장 근본적인 想想인 것이다.⁽²⁶⁾

앞에서 본 「한」과 「극」의 連鎖는 바로 「陰」과 「陽」의 想考와 對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構造主義的方法의 중요 특성인 類推(Analogy)와 同型化(Isomorphism)을 사용하여, 「陰」과 「陽」의 建築空間의 變形(Transformation)의 둘을 「한극構造」⁽²⁷⁾라 定義한다. 앞부분 住居에서의 「한극構造」의 連鎖의 特性도는 다음과 같다.



(24) 姜信杓, “東亞細亞에 있어서 韓國文化”『文化人類學』6卷, 1974, pp.193-194.

(25) _____, “The Structural Principle of the Chinese World View” in『Unconscious in Culture』(New York: E.P. Dutton & Co, 1974) pp.203-204.

(26) _____, “東亞細亞—” 앞의 책

(27) 李黑奉, “韓國建築에 記述學的 構造의 連鎖의 관점 研究” 서울大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78, pp.67-95.

(28) 尹張燮, “韓國建築史”(서울: 東明社, 1975) p.231 p.283

李子宇, “韓國古建築의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석사학위 論文, 1974, p.59,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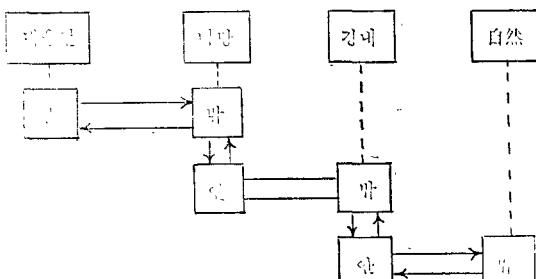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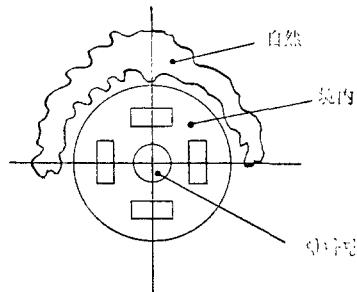
洪海鈞, “韓國相 外部空間의 考察” 서울大 大學院 석사학위 論文, 1970, p.51.

朴錫見, “住宅空間의 構造分析” 서울大 環境大學院 석사학위 論文, 1976, p.107.

林勝彬, “韓國 古庭園의 空間美에 關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석사학위 論文, 1974, p.101.

金濟東, “韓國 古建築의 配置計劃에 따른 外部空間 構成에 關한 고찰” 서울大 大學院 석사학위 論文, 1974, p.17, p.20.

이 「한극構造」를 佛敎사찰에 적용해 보면, 大雄殿을 비롯해 佛房, 神堂, 樓의 4건물로 둘러싸인 안마당이 있는데, 대웅전 즉 「한」에 대해서 안마당은 「극」이 되고 境內에 대해서는 안이 되는 「한」이며 동서에 「극」이 되고, 마찬가지로 境內는 둘러싸고 있는 自然에 대해서는 「한」이 된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위와 같다. 이것은 모든 사찰, 유교서원, 궁궐 등 모든 건물에서 적용되며, 가장 깊고 중요한 외부 공간으로서의 「한」은 어디서나 존재하며, 象徵的 의미가 강한 「한」의 「한」의 「한」인 中心核構造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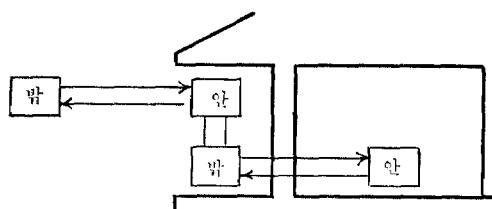
韓國建築의 空間特性에 관해 수평의 論文이 있는데,⁽²⁸⁾ 분석의 편의상 自然과의 調和, 空間의 位階性와 連續性, 內外空間의相互浸透로 오인하여 「한극構造」로 曰解析해 보기도 한다.

먼저 自然과의 調和를 보면, 우리의 庭園은 건물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라 建築이 언제든지 개방되

이 정원과 一體가 되는, 自然과 응합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또 人間은 自然의 가운데에 살므로 自然을 칭복하기 하지 않는다, 이것은 易에 人間  自然 서 人間과 自然의 必然의 관계  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것을 「안  밖」
構造로 해석하면 人間과 自然은 차운관계에 서로 對立하나 다음 단계에선 調和 統一되어 人間이 곧 自然으로 一體가 되는 辨證法의思考를 위의 그림과 같이 圖式화 할 수 있다.

다음 空間의 位階性과 連續性을 보면, 우리 建築의 長가, 空間주대, 마을, 사찰, 궁궐등은 모두 空間構造의 階層的 次序를 가지고 外部에서 内部로 連續性을 이끄며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러한 位階性과 連續性은 다른아닌 陰과 陽의 思考로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向해 나아갈때 징기된 단계 차례 보다 그 사이의 關係를 더 중요시 여기는 까닭에 차이인 連續性(즉 前後關係)을 이루기 되고 한 단 높은 단계를 志向한다는 점에서 位階性(즉主從關係)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안팎構造」로 再解析될 수 밖에 없다.

다음 內外空間의 相互浸透는 憎入, 透過등의 용어로 說明되기도 하는데, 中庭이 室내에 인장으로, 생각 퇴다문과 대청이 分閣門을 빼닮아 온전 기둥만 남고 착로이개 한다 문지, 韓國建築 어디에나 볼 수 있는 「길-온 차마일」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內外空間의 相互浸透는 「內部」와 「外部」라는 구획된 對象보다 그 사이의 關係가 더 중요하다는 陰陽의 「안팎構造」로 간단히 說明되고, 이것을 圖式화하면 안과 밖이 1차로 區分된 다음 「안」에서 「밖」으로 直行하는 것이 아니라 안도 밖도 아닌 「關係」의 차마일을 거친다.



이상과 같이 陰陽 思考는 韓國人에 중요한 深層構造의 차이로서 建築空間에 「안팎構造」로 变形되

어 나타남을 보았는데, 이런 方法은 한글 傳統建築의 特質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또 傳統을 계승하는 創造의 作業에 도움을 줄 것이다.

V. 結論 및 展望

결국, 建築이란, 使用者의 文化를 中心으로 파악해야 하고, 全文化構造 속에서 한 部分을 차지함을 보았고, 그레아만 人間精神이 깃든 所有의 文化를創造해 나가는 역할을 建築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結論에서, 建築學과 文化人類學이 共同作業을 할 수 있는 理論的 墾定을 정리하고, 실제 建築生產에適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로 한다.

1. 共同作業의 理論—文化要素의 重複部分

人類學者에게 建築은 접근하기에 곤란할 텐지도 모른다. 그러나 韓國建築 自體에 접근 方法과 理論이 아직 定立되어 있는 편이 아니기도 하자만, 建築이란 學問 自體가 人文社會科學의 축면은 물문構造力學, 設備工學등의 工學技術의 축면과 美라는概念도 内包한, 폐쇄된 體系로서의 綜合學問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文化要素에 공동으로 흐르는 人間精神이 존재하리라고 가정할 때 이 人間精神의 속성은 「文化的 產物을 조사 비교함」으로써 단 細胞할 수 있고, 이러한 經驗的研究야 말로 유일한 方法이다.⁽²⁹⁾ 예를 들어 단하리, 親族用語 자체는 주어진 社會에서 여러 形態로 나열할 수 있지만, 親族用語와 「교차하는 타 文化 部分」(예를들면, 住居, 遺跡等)을 발견하기 위해 資料를 수집해야 하며, 調査 및 研究를 해야 할 곳은 바로 이 「重複되는 地域」이다.⁽³⁰⁾

「안팎構造」에서와 마찬가지로 陰陽이 우리의 思考, 文字, 文學, 慣習의 基本構造라 할 수 있고 나아가 巫俗信仰이나 佛教 또한 각 文化要素에 영향을 깊이 주었으리라 생각된다.⁽³¹⁾ 이런 데는 앞서 본 Atoni House뿐만 아니라, Prague言語學派에서 民俗무용, 열곡, 繪畫, 詩, 民謡, 服飾에 공통으로 흐르는 精神을 캐내는 作業을 했다.⁽³²⁾ 또, 言語學 쪽의 Benjamin Lee Whorf는 Hopi Indian의 言語體

(29) Edmund Leach [Claude Levi-Strauss] (New York: Viking Press, 1970) p.40.

(30) Pierre Maranda "Structuralism in Cultural Anthropology" i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Palo Alto, California: Annual review Inc, 1972) Vol.1. p.331.

(31) 李熙泰, 韓文解 p.99.

(32) L. Matejka and I. Titunik 「Semiotics of Art: Prague School Contribution」 (Cambridge: MIT Press, 1976).

系가思考體系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이것이建築物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루었다.⁽³³⁾

이렇게共同精神을抽出해내기 위해서는兩學問間共同作業이 필요하며, 따라서 서로의資料교환,共同調查作業,共同分析作業이 시급히 요구된다.

2. 建築生產에 理論의 適用

建築學은人間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建築物이란「틀」을 만들어 주는學問이다. 이「틀」이 잘 만들어 지면人間이生活을 풍부히 즐기도록 도와줄 것이고, 반대로 잘못 만들어 질 때 치명적인 강제와 속박을 가한 것이다. 現在歐美각국에서는現代建築이 갖는 限界를 극복하기 위하여建築學은 폐쇄된 영역을 넘어,人文社會科學分野와 활발한 교류를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저 몇평의 면적을 건설하기에만 금급하여 國際主義建築이 대동하던時期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야만 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오류를 계속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많다. 그중都市에서와農村에서 대표되는 문제로 아파트와聚落構造改善事業을 보기로 하자.

최근 5년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아파트는 최소면적에 최대 세대를 수용하는 천편일률적인 배치로 끌나비려, 삶의 현장으로서의 분위기 보다는商業主義과 결부한商品으로 전락하여, 각종 코뮤니티로서 필요한 시설은 계획안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다. 또한全國的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農村聚落構造改善事業을 예로 들어 보면, 기존의 마을 배치 구조는 치ぐ한 것으로 폐기처분되어도 좋은 것인지, 또 앞으로 바탕적한社會組織에對한理論이定立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 과거를 부수고 새로운聚落을建設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外來文明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生產의 方法나 社會의 組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Ferdinand Saussure의 語言 (Langue: 共通語言)과 語音 (Parole: 個別言語)의 意味로 보면, 우리에게 集團의 으로 대여오는 共通語言(核心構造)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소멸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네 마을이 갖는 連帶意識, 즉 生產에 공동 참여하려는 相扶相助精神이나, 聚落隙와 같은 共同의 精神의支柱, 마을사람들이 모

여 장기두던 느티나무 밑과 같은 共同의 廣場은 都市의 아파트나 農村聚落에서 오늘날의 文脈에 맞게 「變形使用」되어야 할 것이다.

〈後記〉

本論文의 内容一部를 文化人類學會創立二十周年 記念 심포지움 (78. 11. 20, 梨花女大에서), 「人類學과 隣接科學」이란 주제 하에 建築學部門으로 발표한 바 있음.

〈참고문헌〉

姜信杓, "The Structural Principle of the Chinese World View" in *Unconscious in Culture* ed. Ino Rossi New York: E.P. Dutton Co, 1974.

_____, "東亞細亞에 있어서 韓國文化" 「文化人類學」 6집. 서울: 韓國文化人類學會, 1974.

金濟東, "韓國古建築의 配置計劃에 따른 外部空間構成에 관한 고찰" 서울大 환경大學院 석사학位論文, 1974.

朴鎬見, "住宅空間의 構造分析" 서울大 환경大學院 석사학位論文, 1976.

尹張燮, 「韓國建築史」 서울: 東明社, 1975.

李光奎, 「文化人類學」 서울: 一潮閣, 1975.

李基勳, "韓國古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연구" 서울大 환경大學院 석사학位論文 1974.

李熙奉, "韓國建築에 記號學의 構造의 適用에 관한 연구", 서울大 大學院 석사학位論文, 1978.

任哲宰, "韓國文化人類學의 反省과 指向" 「文化人類學」 6집. 韓國文化人類學會, 1974.

林勝彬, "韓國古庭園의 空間美에 관한 연구" 서울大 환경大學院 석사학位論文, 1974.

鄭寅國, "韓國現代建築 20年" 「空間」 1967. 11.

洪大衡, "韓國의 外部空間의 考察" 서울大 大學院 석사학位論文, 1970.

川添登, 「現代建築を 創るもの」 東京: 彰國社, 1970.

Brolin, Brent. *The Failure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Studio Vista, 1976.

Cunningham, Clark. "Order in Atoni House" in *Right and Left* ed. R. Needham. Chic-

(33) Benjamin Lee Whorf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IT Press, 1976)에서 "Linguistic Factor in the Terminology of Hopi Architecture" (78.11.20.)

- ago: Univ. of Chicago Press, 1973.
-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Cambridge: Harvard Press, 1973.
- Grillo, P.J. *What is Design* 安秉義, 金光文彌 「建築디자인」 서울 :理工産業社, 1974.
- Heimsath, Clovis. *Behavioral Architecture* New York: McGraw-Hill, 1977.
- Jencks, Charles.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New York: Doubleday, 1973.
- Kaplan, D. & Manners, R. *Cultur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972.
- Kroeber, A and Kluckho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Vintage Book, 1963.
- Leach, Edmund, *Claude Levi-Strauss*. New York; Viking Press, 1970.
- Levi-Strauss, Claude, *Structural Anthropology*, New York: Anchor Book, 1967.
- Maranda, Pierre. "Structuralism in Cultural Anthropology" i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 Palo Alto, California, 1972.
- Matejka, L. and Titunik, I. (eds.). *Semiotics of Art: Prague School Contributions* Cambridge: MIT Press, 1976.
- Pehnt, Wolfgang *Encyclopedia of Modern Architecture* 張성준역 「現代建築事典」 서울 :民音社, 1972.
- White, Lesile. *The Concept of Culture* 李文雄 역 「文化의 概念」 서울 :一志社, 1978.
- Whorf, Benjamin Lee,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Cambridge: MIT Press, 1976.